How?

회의록 음성 기록 텍스트화 Speech To Text 회의록 작성 Question and Answering Task

KoBERT 이용 한글 QnA 데이터셋으로 학습

Question Answering (SQuAD v1.1)

Input

Paragraph ---

The first recorded travels by Europeans to China and back date from this time. The most famous traveler of the period was the Venetian Marco Polo, whose account of his trip to "Cambaluc," the capital of the Great Khan, and of life there astounded the people of Europe. The account of his travels, Il milione (or, The Million, known in English as the Travels of Marco Polo), appeared about the year 1299. Some argue over the accuracy of Marco Polo's accounts due to the lack of mentioning the Great Wall of China, tea houses, which would have been a prominent sight since Europeans had yet to adopt a tea culture, as well the practice of foot binding by the women in capital of the Great Khan. Some suggest that Marco Polo acquired much of his knowledge through contact with Persian traders since many of the places he named were in Persian.

Question -->

How did some suspect that Polo learned about China instead of by actually visiting it?

Answer: through contact with Persian traders

회의 음성 기록

(자료출처: 국어 모의고사 기출)

이번 모둠 과제를 하려면 먼저 STT의이해를 같이 읽어야 하잖아. 내용이 많고 어려워 보이는데 시간도 많지 않아서 걱정이네. 그래서 오늘 회의의 주제는 모둠과제에 대한 거야. 일단 사회는 팀장인 소연이가 해줘.

오늘 회의 참석자는 구가영 김민찬 이소연 이주연 전지현 하승현이야.

매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 매주 한 명씩 돌아가 면서 책의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 좋겠어. 그러면 발표자는 자신이 맡은 부분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럴 경우 발표자 외의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하는 책임감이 덜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말인데, 자유 토의 방식은 어떨까? 구성원들 모두가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충분히 잘 읽어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발표와 질의응답, 자유 토의라는 두 가지 방안이 나왔네. 그럼 어느 방안이 좋을지 말해 보자.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하면 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친구들이 우리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도 쉬울 거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부담 없이 질문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런데 발표자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나머지 모두가 오해를 할 위험이 있어.

자유 토의 방식은 모두 가 책을 꼼꼼히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니까…

실제 사용 예시)

회의 음성 기록을 바탕으로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가정

[음성 기록]

이번 모둠 과제를 하려면 먼저 STT의이해를 같이 읽어야 하잖아. 내용이 많고 어려워 보이는데 시간도 많지 않아서 걱정이네. 그래서 오늘 회의의 주제는 모둠과제에 대한 거야. 일단 사회는 팀장인 소연이가 해줘. 오늘 회의 참석자는 구가영 김민찬 이소연 이주연 전지현 하승현이야. 에야. 매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 매주 한 명씩 돌아가 면서 책의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 좋겠어. 그러면 발표자는 자신이 맡은 부분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럴 경우 발표자 외의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하는 책임감이 덜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말인데, 자유 토의 방식은 어떨까? 구성원들 모두가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충분히 잘 읽어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 그래서 발인네, 사유 토의 망식은 어떨까? 구정현들 모두기 메우 정해진 분량의 책을 충분히 잘 읽어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발표와 질의응답, 자유 토의라는 두 가지 방안이 나왔네.
그럼 어느 방안이 좋을지 말해 보자.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하면 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친구들이 우리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도 쉬울 거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부담 없이 질문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런데 발표자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나머지 모두가 오해를 할 위험이 있어.
자유 토의 방식은 모두 가 책을 꼼꼼히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니까 책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꼼꼼하게 다 읽어 와야 하는 것은 솔직히 부담이 돼.
나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책을 꼼꼼히 읽고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자유 토의 방식은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따로 정하지 않아서 토의가 활발히 진행되기가 쉽지 않아.
이에 반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은 발표자가 그 역할을 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어.
그리고 자유 토의 방식으로 할 경우, 책을 안 읽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돼.
책을 읽고 온 사람들은 활발히 참여하겠지만 안 읽고 온 사람은 소외될 수도 있어.
그러다 한두 명씩 빠지다 보면 모임이 어려워질 거야.
그런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도 마찬가지야.
발표자가 주비를 제대로 해 오지 않으면 모인을 한 소가 왜 잤아 # 사용자 특성에 맞는 회의록 양식 default로 제공

사용자가 질문 입력

[회의록 with AI]

사용자

참석자: <u>Q. 참석자는 누구인가?</u>
사회자: <u>Q. 사회자는 누구인가?</u>
회의일자: <u>Q. ~</u> 회의장소: <u>Q. ~</u> .
주제: <u>Q. 오늘 회의의 주제는 무엇인가?</u> 논의사항:
…세부내용…
<mark>다음 발표자</mark> : <u>Q. 다음 발표자는 누구인가?</u> .
가 임의로 수정가능

Question:사회자는 누구인가?

Answer: 소연이

Question:모둠 과제는 무엇인가?

Answer: stt의이해

Question:다음 발표자는 누구?

Answer: 홍길동

Question:오늘 참석자는 누구인가?

Answer: 구가영 김민찬 이소연 이주연 전지현 하승현

Question:오늘 회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Answer: 모둠과제

KoBERT QnA 결과 이용!

회의록 작성 도우미 서비스 _ 사용 예 1)

[음성 기록]

이번 모둠 과제를 하려면 먼저 STT의이해를 같이 읽어야 하잖아. 내용이 많고 어려워 보이는데 시간도 많지 않아서 걱정이네. 그래서 오늘 회의의 주제는 모둠과제에 대한 거야. 일단 사회는 팀장인 소연이가 해줘. 오늘 회의 참석자는 구가영 김민찬 이소연 이주연 전지현 하승현이 야. 매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 매주 한 명씩 돌아가 면서 책의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 좋겠어. 그러면 발표자는 자신이 맡은 부분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 경우 발표자 외의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하는 책임감이 덜 수도 있어. |서 말인데, 자유 토의 방식은 어떨까? 구성원들 모두가 매주 정 ! 분량의 책을 충분히 잘 읽어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 애신 문당의 색을 중문이 설 읽어 와서 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른 거야.
발표와 질의응답, 자유 토의라는 두 가지 방안이 나왔네.
그럼 어느 방안이 좋을지 말해 보자.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하면 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친구들이 우리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도 쉬울 거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부담 없이 질문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런데 발표자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나머지 모두가 오해를 할 위험이 있어.
자유 토의 방식은 모두 가 책을 꼼꼼히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니까 책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꼼꼼하게 다 읽어 와야하는 것은 솔직히 부담이 돼.
나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책을 꼼꼼히 읽고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자유 토의 방식은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따로 정하지 않아서 토의가 활발히 진행되기가 쉽지 않아.
이에 반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은 발표자가 그 역할을 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어.
그리고 자유 토의 방식으로 할 경우, 책을 안 읽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돼.
책을 읽고 온 사람들은 활발히 참여하겠지만 안 읽고 온 사람은 소외될 수도 있어.
그러다 한두 명씩 빠지다 보면 모임이 어려워질 거야.
그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도 마찬가지야.
발표자가 주비를 제대로 해 오지 않으며 모인은 한 수가 있 잖아 야

사용자 특성에 맞는 회의록 양식 default로 제공

Question:오늘 회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Answer: 모둠과제

[회의록 with AI]

참석자: <u>구가영 김민찬 이소연 이주연</u>	<u> 전지현 하승현 .</u>
사회자: <u>소연이</u> .	
회의일자: <u>21.01.21</u> 회의장	소: <u>온라인.</u>
주제: <u>모둠과제</u> . 논의사항:	
…세부내용…	
Ansv Ques Ansv Ques Ansv	stion:사회자는 누구인가? wer: 소연이 stion:모둠 과제는 무엇인가? wer: stt의이해 stion:다음 발표자는 누구? wer: 홍길동 stion:오늘 참석자는 누구인가? wer: 구가영 김민찬 이소연 이주연 전지현 하승현

회의록 작성 도우미 서비스 _ 사용 예 2)

[음성 기록]

이번 모둠 과제를 하려면 먼저 STT의이해를 같이 읽어야 하잖아. 내용이 많고 어려워 보이는데 시간도 많지 않아서 걱정이네. 그래서 오늘 회의의 주제는 모둠과제에 대한 거야. 일단 사회는 팀장인 소연이가 해줘. 오늘 회의 참석자는 구가영 김민찬 이소연 이주연 전지현 하승현이 매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 매주 한 명씩 돌아가 면서 책의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 좋겠어. 그러면 발표자는 자신이 맡은 부분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 경우 발표자 외의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하는 책임감이 덜 수도 있어. |서 말인데, 자유 토의 방식은 어떨까? 구성원들 모두가 매주 정 ! 분량의 책을 충분히 잘 읽어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 아. 발표와 질의응답, 자유 토의라는 두 가지 방안이 나왔네. 그럼 어느 방안이 좋을지 말해 보자.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하면 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친구들이 우리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도 쉬울 거고, 모르 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부담 없이 질문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런데 발표자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나머지 모두가 오해를 할 위 험이 있어. 자유 토의 방식은 모두 가 책을 꼼꼼히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니까 책 야. 그런데 발표자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나머지 모두가 오해를 할 위험이 있어.
자자 토의 방식은 모두 가 책을 꼼꼼히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니까 책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꼼꼼하게 다 읽어 와야하는 것은 솔직히 부담이 돼.
나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책을 꼼꼼히 읽고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자유 토의 방식은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따로 정하지 않아서 토의가 활발히 진행되기가 쉽지 않아.
이에 반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은 발표자가 그 역할을 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어.
그리고 자유 토의 방식으로 할 경우, 책을 안 읽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돼.
책을 읽고 온 사람들은 활발히 참여하겠지만 안 읽고 온 사람은 소외될 수도 있어.
그러다 한두 명씩 빠지다 보면 모임이 어려워질 거야.
그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도 마찬가지야.
발표자가 주비를 제대로 해 오지 않으면 모인을 한 수가 있 잔아 # 사용자 특성에 맞는 회의록 양식 default로 제공

[회의록 with AI]

참석자: <u>Q. 참석자는 누구인가?</u>		
사회자: <u>Q. 사회자는 누구인가?</u>		
회의일자: <u>Q. ~</u> 회의장소: <u>Q. ~</u> .		
주제: <u>Q. 오늘 회의의 주제는 무엇인가?</u> 논의사항:		
…세부내용…		
<mark>다음 발표자</mark> : <u>Q. 다음 발표자는 누구인가?</u> .		
소연이 홍길동		

{0: '소연이', 1: '홍길동'} Question:모둠 과제는 무엇인가? {0: 'stt의이해', 1: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은 발표자가 그 역할을 하면서 Question:다음 발표자는 누구?

|Question:다음 발표자는 누구? |{0: '소연이', 1: '홍길동'}

Question:오늘 참석자는 누구인가?

{0: '구가영 김민찬 이소연 이주연 전지현 하승현', 1: '홍길동'}

Question:오늘 회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0: '모둠과제', 1: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은 발표자가 그 역할을 하면서

실제 회의록으로 실현 가능?

→ 우리 팀 회의 음성 기록을 STT한 후 QnA 해본 결과

Question: 세부 내용은 누가 담당하는가?
Answer: 개발자분들 중심적으로